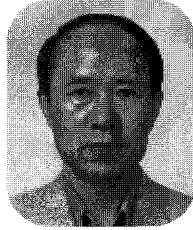


2004년 국내 돼지고기수급 및 가격전망



정 규 성 소장
축산물유통연구소

1. 2003년 양돈업을 돌아보며

참으로 어려운 2003년도가 지나며 새해에는 어려움을 견디어 낸 결실이 더욱 크게 맺어질 길 기대하는 바람 뿐이다.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피부에 와닿는 흐름 속에서 양돈업도 예외일 수는 없는 듯 하여 양돈 사상 불황이 이렇게 깊었던 때도 없었다고 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 경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소되기에는 무리 있을 듯한 분위기다.

상당기간 계속되어 오던 돼지경락가격 사이클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었으나 양돈가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상당수의 양돈가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듯 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양돈업의 경기불황에 따른 사료업체, 동물약품 등 관련산업도 어려움이 예상을 훨씬 넘는 수위로 알려지고 있어 2004년도의 양돈산업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

유통시장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소비위축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위축과 점차 개선의 조짐을 보이기는 하나 아직도 심화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위별 소비 편중화, 또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냉장육 위주로 집중되는 육류소비 문화의 변화 등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돼지거래 가격흐름을 형성케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나마 러시아와 필리핀 등에 수출이 재개되어 수출부위의 체화 현상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거래 가격면에서 보면 속상함을 금하기 어렵다고 본다.

돈열 백신 영향에 따른 출하물량의 변동성으로 총 사육두수 통계치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이 남고 있는 듯 하나, 제반자료를 감안하면 대일 수출이 중단된 이후 내수시장 위주로 재편된 돼지고기 시장에 현재의 사육두수 추이는 당분간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 하다.

자조금 조성, 요리개발,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등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이 지

속되고 있어 올해에는 2003년도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2. 2004년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가. 돼지고기 수급전망

2003년 초의 돼지고기 수급추정을 보면 공급면에서는 국내 생산량이 814천여톤, 수입물량 60천여톤, 금년도 이월물량 57천여톤으로 932천여톤이 공급되어 2002년도의 886천여톤 대비 총물량면에서 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국내산 생산물량의 감소영향으로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돼지 도축두수를 보면 전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당초의 예상보다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말까지의 도축두수를 추정하여 공급물량을 산출해 보면 총 공급물량이 888천여톤으로 2002년 대비 소폭 증가세 수준에 머무를 듯 하다. 수요측면에서는 국내소비물량은 829천톤으로 2002년도 대비 2%정도 증가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출물량은 2003년 말까지 20천톤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류유통협회 자료)

이로 인하여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도 당초 17.5kg 수준에서 17.3kg정도로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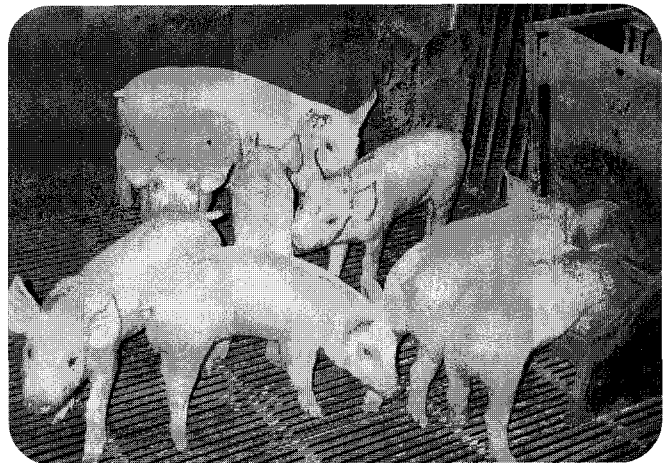
축산관측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월의 돼지 총 사육두수는 928만7천여두로 전년동기 보다 2.8%(25만4천두)가 증가하였고, 모돈 두수도 98만8천여두로 전

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구제역으로 임시 폐업한 농가들이 생산체제를 갖추며 모든 입식 영향으로 3월부터 모돈수가 증가하였고, 4~6월 돈가상승 영향으로 9월 사육두수가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중 경기 위축에 따른 불경기 장기화 영향으로 양돈농가들의 경영수지 압박과 돈열백신 접종영향 등으로 돼지 사육두수는 계절적인 특성까지 중복작용이 예상되어 2003년도 연말에는 914만9천두, 2004년도 3월에는 911만5천여두로 예상하고 있다.

양돈업의 불황장기화로 특히 중소규모의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리하는 흐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2004년도의 돼지사육두수 및 출하흐름을 예상하는데 혼란을 느끼게 하는 듯 하다.

2004년도 돼지고기의 수급추정에 가장 주요 사항인 도축, 출하 물량에 대한 전망이 양돈산업 주변여건 불투명에 따라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양돈업계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2003년도 수준에서 소폭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2003년도의 총 도축두수가 1월에서 10월까



지 1,255만여두로 2002년 동기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전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2년도의 총 도축두수 1,533만8천두를 상회하지는 못할 듯 하다. 2004년도 1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의 출하물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비중을 높이고 있어 돈열백신 접종 후 유증이 어느정도나 출하물량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당분간 지켜보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사육두수 증가에 대한 점이 고려된다면, 2004년도의 도축물량은 1,530만~1,540만여두로 추 정케 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한 공급 물량은 국내 생산량이 790천 여톤 정도로 추정되고 국내 돈가 약세로 인하여 위축세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입물량 도 2003년도 수준인 60천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수요면에서는 2004년도의 국민 총생산이 5%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연구기관들의 발표가 이어지는 등 2003년도의 어려움이 소 폭이나마 개선될 것이 기대되고 있고, 물가 상승율도 2.5%~3.0%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3년도 추정치 829천톤보다 2~3% 증가한 840~850천톤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물론 2003년도부터 지속되어온 극심한

소비심리 위축세가 어느정도 진정, 회복되리 라는 기대치가 상당폭 포함된 수치로, 예상 외로 시중경기 위축세가 장기화되거나 더 심화 될 경우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힘들것 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변수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돼지고기 수급상 가장 큰 요인이 시 중경기 흐름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 인바 시중경기 흐름이 더욱 주목되는 2004 년이 될 듯 하다.

수급상 가장 관심사였던 돈육 수 출은 러시아,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 고 있어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추정 20천 톤보다 증가세 를 보여 25천 톤까지 늘어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도에도
예년과 같은 가격 사이클이
예상되고 있으나, 돈열백신 이후의
사육 두수 및 출하물량 예측치를 감안하면
2004년도 1분기에는 2003년도 보다는 다소 높은
2,400~2,600원대 2분기에는 2,800~3,100원대
3분기에는 2,300~2,600원대, 4분기에는
2,000~2,300원대가 전망되어 년중
평균은 2,500~2,600원대를
형성할 듯하다.

나. 돼지가격 전망

상당기간 지속되어 오던 돼지거래 가격 사이클이 2003년도에는 돈가 상승기 가 짧고 상승폭도 예년에 못미치는 흐름을 보 여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듯 하다.

2002년도의 1~3월의 2,800원대가 2003년도 에는 2,200~2,400원대, 4~6월에는 2002년도의 3,100~3,270원대가 2003년도에는 2,500~3,000원 대로 비교적 크게 낮아졌으나 7~9월에는 2002년도의 2,090~2,700원대의 큰 등락차가 2003년도에는 2,150~2,700원대로 나타났으며 10월 이후에는 10월의 큰 폭 하락세 이후 2,300~2,400원대로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

고 있다.

2003년도의 돼지고기 유통시장 흐름을 보면 돈가 사이클의 변화 요인은 전반적인 소비위축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된 점 이외에 냉장 인기 부위의 수요가 돈가의 향방을 좌우하는 흐름이 강하게 반영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돼지부분육 가공, 유통업소의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특히 냉동육 유통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수입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냉동육 위주의 수입삼겹살의 저가판매 흐름이 불가피하였던 듯 하다.

2004년도에도 돼지거래가격 형성에 가장 주요 요인인 시중경기 추이를 감안하더라도 냉장육 인기부위 위주의 소비패턴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물론 수출부위의 수출 지속과 내수소비, 육가공원료 공급 활성화 등의 기대되고 있으나, 돈가 흐름에 미치 영향력 비중을 보면 냉장, 인기부위의 소비추이가 가장 관련일 듯 하다.

2004년도 돼지거래가격 전망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수급 양면에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이나 공급 면에서는 국내 생산 물량 추이와 질병 영향, 수입물량 변화 등이 주요 변수일 듯 하며, 수요면에서는 시중경기 변화, 수출 물량 추이, 돼지고기 소비패턴 변화로 집약할 수 있다.

예상에 어려움이 크다 하겠으나, 2003년도 하반기 이후 골이 깊어지는 양돈 업계의 불황, 특히 인상 불가피론이 거세지고 있는 사료 가격 추이와 이에 따른 양돈 농가들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인상시 그 여파가 미칠 파장 등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

2004년도에도 예년과 같은 가격 사이클이 예상되고 있으나, 돈열 백신 이후의 사육 두수 및 출하물량 예측치를 감안하면 2004년도 1분기에는 2003년도 보다는 다소 높은 2,400~2,600원대 2분기에는 2,800~3,100원대 3분기에는 2,300~2,600원대, 4분기에는 2,000~2,300원대가 전망되어 년중 평균은 2,500~2,600원대를 형성할 듯하다.

시중의 소비추이, 사회구조 변화, 식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면 양돈업도 품질과 맛, 기능성을 고려한 차별화 등이 더욱 요구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어려움을 이겨 낼수 있는 적정 규모 유지, 생산성 향상, 질병 예방 등의 기본적인 면에서 일보 앞선 형태의 양돈 산업 구조변화가 빨라질 것이 예상되며, 특히 고질적인 수출부위의 제값받는 유통 소비체계 확립에 전력 투구해야 될 것이다. 2004년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며 양돈 농가 및 양돈 관련 분야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원한다. **양돈**

돼지콜레라 박멸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